



# 지혜의 말씀

불기 2570년 6월 / 통권 543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 법구경 (法句經)

이 같은 진실을 완전하게 알아  
항상 마음을 집중시키는 현자에게 있어  
마음 집중은 그에게 법희(法喜)를 주고  
그를 언제나 성스러운 길에 머물게 한다.

慧知守道勝	從不爲放逸
혜지수도승	종불위방일
不貪致歡喜	從是得道樂
불탐치환희	종시득도락

- 법구경 계송 22



##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어머니 사랑 / 윤성스님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 8

『법구경』 해설-15 / 자경스님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6월 법회 및 행사 · 13

알림마당 · 15

고맙습니다

백중기도 안내

백중기도 중 다라니 참회기도 안내

제26회 대광사 산사음악회 안내

대광사 템플스테이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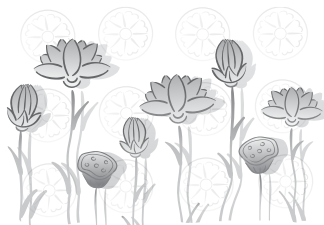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s.or.kr](http://www.daegwangsas.or.kr)

• 발행인·편집장 / 자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 어머니 사랑

윤성스님 / 대광사 회주

어느 날 어머니가 머무는 요양원에 아들이 찾아왔다. 늘 마음은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몇 개월 만에 찾아왔다.

젊었을 때 어머니에게 아들은 전부였다. 어린 아들에게도 어머니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존재였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힘들어도 버텼고, 서러워도 참았다. 자기 것은 늘 뒤로 미뤘다.

그런데 어머니가 늙고, 혼자 밥 먹는 것도 못 하고.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누군가의 손이 꼭 필요해졌을 때.  
아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

어머니는 낯선 방에서 매일 창밖을 봤다. 창밖의 세상을 본 게 아니었다. 집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다.

혹시 아들이 와서 “엄마, 집에 가자”

이 한마디 해주며 데려가 주기를 기다렸다. 익숙한 방에서, 익숙한 이불을 덮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걸 말하지 못했다. 아들 집에 더는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걸 어머니도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차갑게 말했다.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기분도 짹짹하고, 나중에 집도 팔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족이 합의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

“엄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니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말을 삼켰다.



“다음 생이 있다면, 엄마는 네가 키우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너는 문을 열고 강아지를 보면 그렇게 환하게 웃더구나. 그런데 엄마를 보면 늘 아무 표정이 없었다. 엄마가 강아지보다도 못한 거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엄마도 알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 너희 집에 있을 때도 매일 조심했어. 말 한마디 잘못할까 봐, 너희 기분 상하게 할까 봐, 겁이 났어!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가 걷고 싶다, 햇볕 좀 쬐고 싶다고 하면 며느리는 창가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강아지는 매일 즐겁게 산책시키더구나. 강아지 밥도 따로 챙기고, 목욕도 시키고 발도 닦아주더구나.”

“너도 퇴근하고 들어오면 강아지부터 보고 웃었어. 아이처럼 웃었어. 그런데 엄마는 잘 보지도 않았어.”

“사람은 다 늙는다. 너도 네 아이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가르쳐야 한단다. 나중에 네가 엄마처럼 외롭고 힘들게 늙어갈까 봐 그게 더 걱정되는구나.”

아들은 죄스러움과 후회의 슬픔으로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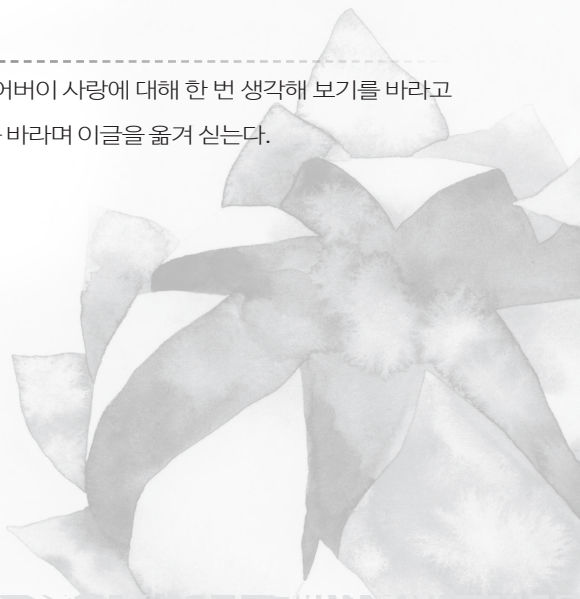
“엄마, 죄송해요.”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네가 나중에 나처럼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늙어갈까봐 그게 걱정이란다.”

어머니 사랑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자신은 이렇게 버림받고 있으면서도 끝내 자식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

\* 가정의 달을 맞아 아버지 사랑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좋은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옮겨 신는다.



# 『법구경』 해설 - 15

## 사마와띠와 마간디아 왕비 이야기 - ②

자경스님 / 대광사 주지

(전 호에 이어)

이 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문 알라갓빠가 살고 있었는데, 우연이 이곳을 지나다 나뭇가지 위에서 들려오는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들을 구하여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데려와서 산속에서 탄 꼴을 주기도 하고 농사지은 쌀로 죽을 끓여주기도 하여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아기는 이렇듯 알라갓빠 사문의 보호아래 훌륭하게 성장하여 소년이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코끼리를 다루는 삼현금의 비법을 사문으로부터 전수받고, 어머니로부터는 코삼비국의 왕자인 증황들을 새겨 듣고서, 드디어는 코끼리 군대를 앞세워 코삼비로 진군하여 우여곡절 끝에 별 저항없이 코삼비의 왕위에 올랐다.

### 2. 우데나왕의 첫 왕비 사마와띠

우데나왕은 재정관 고사까의 딸 사마와띠를 흠모하여 왕비



로 맞이한다. 우데나왕은 왕비에게 매일 꽃을 올리도록 시녀 쿠주따라에게 동전 여덟닢을 주었다. 그녀는 매일 꽃장수 수마나에게 가서 꽃을 사다가 왕비의 궁전을 꾸몄다.

어느 날 쿠주따라는 수마나의 꽃가게에서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녀는 선근(善根)이 깊었으므로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과를 성취하였고, 왕궁에 돌아와 왕비와 궁녀들에게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같은 경지를 얻게 되었다.

이에 왕비와 500명의 시녀가 모두 쿠주따라에게 삼배를 올리고 말했다.

“벗이여, 오늘부터 힘든 일은 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어머니, 스승이 되어 주소서. 매일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듣고 돌아와 우리들에게 그대로 들려 주소서.”

그리하여 쿠주따라는 그 이후부터는 부처님의 설법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설법을 듣고 와서는 왕비와 궁녀들에게 전하곤 했다. 그러는 동안에 쿠주따라는 경율론 삼장에 통달하게 됐고, 부처님께서서는 그녀를 여자 신도들 중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비구들이여, 나의 여자 재가신도 중에 경을 많이 듣고 법을 잘 설하기로는 쿠주따라가 제일이니라.”

사마와띠 왕비와 궁녀들은 쿠주따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



침을 전해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한번도 부처님을 뵈은 적은 없었으므로 기회가 있으면 꼭 부처님을 뵈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소원을 이야기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왕에게는 그 소원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들은 부처님을 왕궁으로 초대하지 못하고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 쪽의 벽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을 통해서 부처님을 뵈으면서 합장 공경을 올렸다.

### 3. 우데나왕의 다른 왕비 마간디아(무비)

한편 꼬삼비의 국왕 우데나에게는 또 다른 왕비가 한 사람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간디아였는데, 브라흐만 마간다의 딸이었다. 예전에 마간다는 부처님을 만난적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나라 안에서 제일가는 미모를 지녔다고 자부하는 자기의 딸 마간디아를 부처님께 바치겠노라고 제의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간다여, 여래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기 직전에 마왕은 오염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의 딸들을 나에게 보내어 유혹하였더니라. 그렇지만 여래는 모든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제의에 대해 아무런 동요가 없었느니라. 그렇거늘 하물며 똥과 오줌과 피와 고름으로 가득찬 여자를 내가 어찌 즐거이 생각하겠느냐? 여래는 그 더러운 몸에 나의 발바닥조차 닿지 않게 하겠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간디아의 부모는 사람의 몸



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여실히 깨달아 아나함과(阿那含果)를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딸을 동생에게 맡기고 출가하여 비구 비구니가 되었다. 그들 부부는 머지않아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

하지만 그들의 딸 마간디아는 화가 나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를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발바닥조차 닿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나는 반드시 명망있는 권력자를 배우자로 삼아 사문 고탓마에게 복수하고 말겠다.’

그녀는 이렇게 부처님께 증오심을 품고 있었는데, 얼마 뒤 그녀의 후견인인 숙부는 왕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마간디아를 꼬삼비 국왕 우데나에게 바쳤다.

#### 4. 부처님과 사마와띠에게 향하는 마간디아의 음모

왕비가 된 마간디아는 사마와띠 왕비가 부처님을 존경하여 벽에 구멍을 내고 부처님께 존경의 예를 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이 부처님을 곤경에 빠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왕에게 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하였다. 즉, 사마와띠 왕비는 부처님과 매우 불결한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데나 왕은 이미 이전에 그 구멍을 보았고, 또 사마와띠 왕비의 품성을 알기에 대수롭게 않게 들었다. (다음 호에).



##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 대광사 6월 법회 및 행사

- ◇ 6월 13일 : 제26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
- ◇ 6월 15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6월 17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6월 29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제26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

- 2026년 6월 13일(토) 오후 6시 30분
- 대광사 대웅전 앞마당

### 백중기도

- 입재 : 7월 10일(금) 오전 10시 설법전  
초재 7월 16일 / 2재 7월 23일 /  
3재 7월 30일 / 4재 8월 6일 /  
5재 8월 13일 / 6재 8월 20일
- 회향 : 8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설법전
  - 동참금 : 영가 1위 2만원



# 대광후원회

(2026.4.19.~5.19.)

황두관 1만원	변창인 2만원	구자민 3만원	이병정열정영어 20만원
이순남 1만원	김병문 2만원	이우권 3만원	카텍홀딩스 30만원
정진이 1만원	홍승운 2만원	정대식 5만원	
박미애 1만원	이인숙 2만원	김종련 5만원	
송성수 1만원	김태희 2만원	박진호 10만원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9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지혜의말씀 후원(2026.4.19.~5.19.)

김민성 12만원 / 김영우 10만원 / 주정수 5만원 / 김정수 5만원 / 송민기 1만원 /  
 조홍준 1만원 / 청향심(영)1만원

### ♥ 설담장학회(2026.4.19.~5.19.)

주지스님 10만원 / 운영위원회 50만원 / 대광불교대학총동문회 100만원  
 바라밀회 50만원 / 반야찬불단 30만원 / 시라다도회 30만원 / 이희숙 20만원  
 최귀향 10만원 / 신애란 10만원 / 김승화 5만원 / 이봉희 5만원 / 김단우 3만원  
 김정숙 3만원 / 진병천 3만원 / 김태희 3만원 / 구자민 2만원 / 이유림 2만원  
 이윤정 2만원 / 박임선 2만원 / 변지오 2만원 / 이순남 1만원



♥ 초파일 공양

이현실, 감종필, 박인주, 김성민, 김명호, 윤지영, 정봉기, 황인섭, 장준철, 박중호  
김기만, 이태규, 변창인, 박성훈, 박원호, 서효동, 이종철, 김중국, 정호철, 김기만  
박귀남(영)

♥ 초파일 화공양

김순옥, 조필순, 희견심, 공덕심, 해일심, 박영순, 김귀애, 한 신, 인혜심, 여래화  
대명화, 원명행, 김월선, 연화수, 진각심, 백운향, 보명화, 정소선, 무상원, 금연화  
가행원, 반아지, 불영화, 윤순현, 시형지, 선보행, 정토화, 만법수, 오정후, 오채현  
마형임, 반아행, 이명숙, 자비행, 혜연심, 진성화, 금강지, 법계화, 삼덕화, 성불심  
금강심, 정법행, 법안성, 혜명화, 견도혜, 위명지, 조연자, 감로행, 윤동조, 방수철  
정희숙, 박아순, 김덕효, 허공혜, 여의지, 원지심, 대각행, 수선화, 수선지, 선혜지  
광명심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백중기도 중 다라니 참회기도

- 매일 108참회 후 다라니 21독
- 입재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설법전
- 회향 : 8월 24일(월) 오후 1시 30분 설법전
- 동참금 2만원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대광사 템플스테이

# ■ 낚 용서하는 낚 [ 휴식형 ]

- ▷ 참가비 : 1인당 5만원  
(미취학 : 1만원, 초등 : 2만원, 청소년 : 3만원)

# ■ 자연과 나~

편백숲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 체험형 ]

- ▷ 참가비 : 1인당 7만원(고등학생, 성인만 가능)
- 공무원, 군무원 1인당 1만원 할인 (동반 1인까지)
  -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원 1인당 40%할인 (동반 1인까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